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이천 승가원 의료봉사 활동 다녀와

교직원불자회 연우회(회장 성낙진)는 2월 28일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날 의료봉사는 한방내과 임성우 교수,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 물리치료사 등 임원진과 회원 30여 명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 환우 50여 명에게 양·한방진료와 재활치료 등을 시행했다. 의료봉사 이외에도 승가원 소속 직원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과 승가원 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레크레이션 등으로 승가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연우회는 앞으로도 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나눔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를 원력으로 설립하였으며, 승가원 가족들이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2015년 내과 우수병동 선정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내과는 2015년 내과 우수병동으로 81병동을 선정하고 2월 27일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내과 우수병동은 2015년에 처음 시행한 제도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여 명의 내과 전공의들이 비밀투표를 하여 선정했다. 김영권 내과과장은 “환자안전과 고객만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간호사와 전공의들을 격려하고,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3 간호부 1st anniversary event 시행

간호부는 입사 1주년을 맞이한 2013년 발령 간호사들을 축하하기 위한 1st anniversary event를 2월 5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눈꽃열차’의 주제로 기차여행에 대한 설렘과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의 반가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에서는 단종이 거처하던 ‘단종어소’와 그 곳을 둘러싼 울창한 송림을 거닐며 동기애를 쌓았으며, 눈 내린 창밖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선사한 영월-태백 구간의 눈꽃열차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행사에 참가한 간호사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아쉬웠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1년 동안 힘들었던 심신을 치유하고, 동기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앞으로 더 많은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04 동국대학교 약대 실습생 대상, CS교육 실시

약제팀은 2월 24일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6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안주향 CS강사를 초빙하여 CS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CS교육은 필수실무실습 오리엔테이션 중 한 과정으로 CS마인드, 이미지메이킹,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의 주제로 서비스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고객응대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약사직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과의 신뢰감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Q&A

Q 다른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진료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동계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소감문 당선작

대 상 이승빈 학생

나는 이번 겨울방학 1주일 동안 동국대학교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봉사시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2층 외래에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외래에 배치되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는 정말 일반 봉사활동 하는 곳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여서 놀라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나는 자동 혈압 측정기 옆에서 환자분들께 혈압 측정하는 법을 도와드리거나 휠체어를 탄 환자분이 오시면 의자를 치워드리는 등의 활동을 했다. 활동을 하다 보니 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게으르게 행동했던 점도 있었다. 혈압을 측정하는 환자가 없을 때는 벽에 기대있기도 하고 정말 다리가 아플 때는 잠깐 앉아있기도 했다. 그때 벽에 기대 있거나 의자에 잠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나와는 다르게 정말 열심히 환자분들을 도와주고 이 곳 저 곳 정리하는 같은 층의 성인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다. 힘드실텐데도 언제나 웃고 계셔서 내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이 자원봉사자 아주머니 뿐만 아니라 계속 서서 일하면서 환자분들께 친절하게 설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과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모두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결과적으로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력과 인내심도 생기고 판단력도 조금 좋아질 것 같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배울 수 있어서 보람찼던 시간이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